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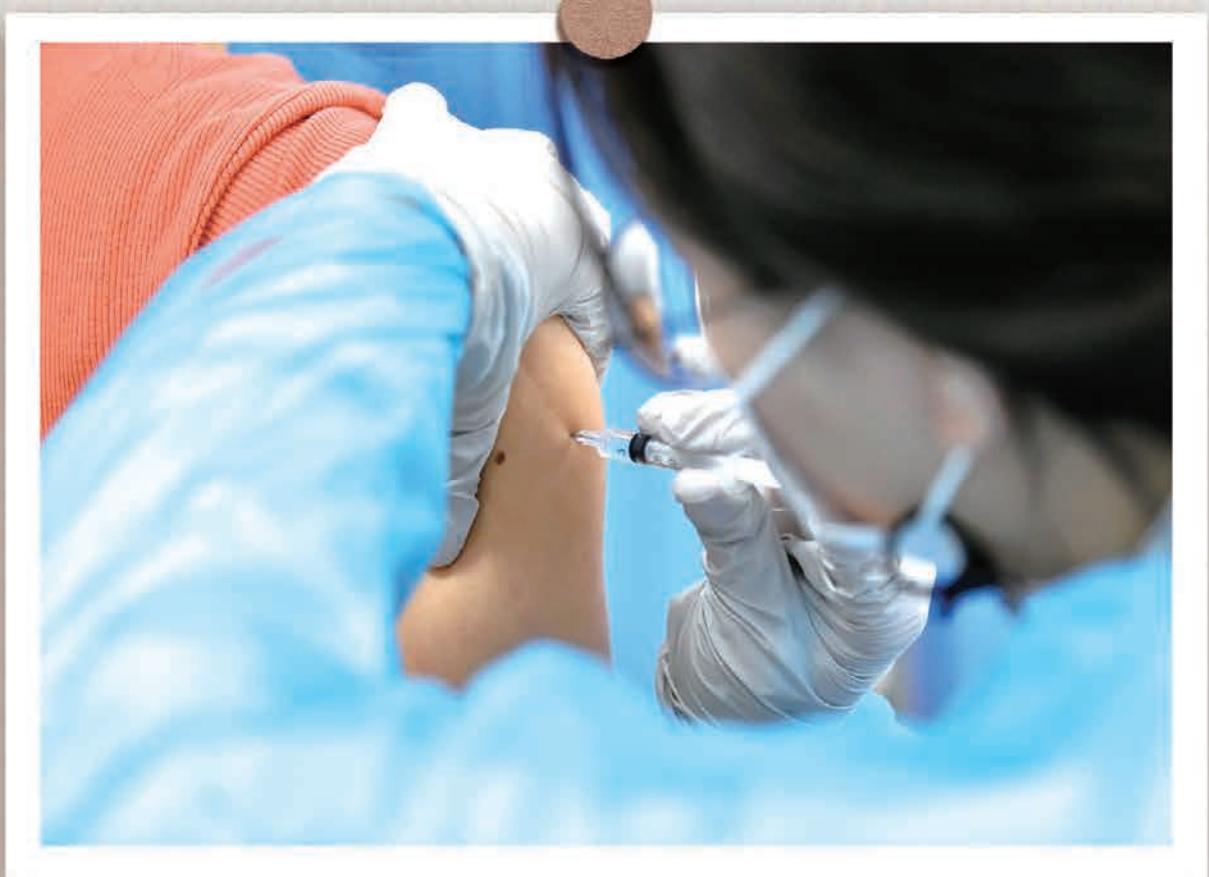
2021. 352호

중요한 미래의 땅, 힐끗장수

느개고을 푸른 장수



장수군 방화동자연휴양림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장수군은 9월 말까지 전 군민 90% 백신 접종을 목표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개고을 푸른 장수

2021년 6월 352호



04 장영수 군수 인사말

풍요로운 장수

- 06 3주년 기획특집 장수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
- 10 장수 5·4·8정책 장수의 새로운 도약 '장수5·4·8정책'
- 12 살기좋은 장수군 촘촘한 복지로 누구나 살기 좋은 장수군
- 16 봉화불이 피어오르는 장수

미래의 땅 장수

- 18 누리파크 체험 아이와 가족 모두가 즐거운 장수 누리파크 체험 놀이터
- 20 백두대간 육십령고개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 추진 탄력
- 22 장수 머위의 봄 맛! 장수 땅양지마을 '머위' 새로운 소득작물 각광!

장수 스케치

- 26 코로나19 백신접종 예방접종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힘찬 장수

- 28 소통행정 강화 장영수 군수,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실시
- 30 다문화 소식 결혼이주여성 한식조리기능사반 배움 열기 '후끈'
- 32 장수군의회 소식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고향소식 받아가세요. 이사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수군수
장영수 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장수군수 장영수입니다.

'득의지추(得意之秋: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어 아주 통쾌한 때)'의 해를 선언하고 시작했던 2021년이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부푼 희망과 무기운 책임감으로 시작했던 민선 7기도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주요 현안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힘센 장수 7대 군정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인 장수 5·4·8정책도 내실 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콘서트와 다양한 계층, 문화·체육·복지·농업·산림 등 분야별로 진행했던 간담회 등을 통해 군민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군정을 이끌어 군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실현한 것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천천 하이패스IC 설치사업을 비롯한 농산물 신선편이 가공시설·축산육가공시설 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장수가야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장수누리파크 활성화 사업 등 올해 1,348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 국·도비 2,236억원 확보를 시작으로 2021년 본예산을 4,259억원으로 끌어올려 민선7기 임기 내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면서 무진장으로 불리던 변방 장수의 시대를 끝내고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의 시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절반도 남지 않았고 민선 7기도 임기 4분의 3을 보내며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힘센 장수 7대 군정 목표와 핵심 프로젝트인 장수 5·4·8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당초 약속드렸던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군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장수군수 장 영 수



소통행정 중심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장수군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기치로 출발한 장수군 민선7기 장영수 호가 취임 3주년을 맞았다. ‘힘센 장수’를 자임하며 ‘힘센 장수’를 만들겠노라 선언했던 장 군수는 올해 예산 4,000억 시대를 조기에 실현해 무진장의 변방, 장수시대를 마감시켰다. 주요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 대규모 국가예산을 확보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수군 발전을 이끌었다. 장 군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젊은 패기와 열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장수군을 만들고 비약적인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이다. 장 군수의 지난 3년과 남은 1년의 계획과 각오를 살펴본다.



▲ 장수레드푸드융복합단지



▲ 장수군립도서관 현장



▲ 누리파크 활성화 사업현장

국가 예산
4000억 시대로

부자 동네 조기 실현

장수 '5·4·8정책'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특의지주'의 해

민선7기 장수군의 모토는 현장 소통 중심 부자 동네 실현이다.

장 군수는 취임 당시 소통행정 실현을 약속하고 부자 동네 만들기에 주력했다. 그 결과 장수군은 국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앞당기면서 부자동네 만들기를 조기 실현했다.

예산 4000억 시대 조기 실현으로 지난한 동네, 면방 장수로 불리던 오명에 마침표를 찍었고 더 희망찬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천천 하이패스IC 설치사업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 자원화 사업 ▲농산물 신선편이 가공시설 건립 ▲축산물 육가공시설 건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또 ▲장수레드푸드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장수 군립도서관이전 건립 사업 ▲장안문화예술촌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장수읍 비점오염원 저감 시설 설치사업 ▲번암면 건강증진형 이전신축사업 등이다.

장영수 군수는 1차 산업 농업에서 탈피해 관광과 체험, 교육 등을 접목한 6차 산업 농업의 고장, 앞서가는 깊은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장수 5·4·8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수 누리파크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가족농촌사업 행사, 한마음뜰조성, 어린이 생활문화센터 및 자연놀이터설치, 동물카라반 및 데크야영장, 한우바비큐장 등을 추진해 체험형, 체류형 농촌 거점 휴양마을을 육성한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주관한 강소형 잠재 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수누리파크는 체계적인 컨설팅,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활동, 지역특화상품 개발, 팸투어, 관광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됐다. 군은 장수 대표 레드푸드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관광,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조성해 전국적인 농업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천천 하이패스 IC, 장수IC~천천 연결도로 개설, 조랑말 공원 조성은 물론 악취없고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계남양돈단지 정비 등 청정지역 이미지 개선을 통해 더욱 오고 싶은 장수군을 만든다. 사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을 위해 장수사과, 장수한우, 장수오미자를 비롯한 토마토, 두릅, 며위, 식용곤충 등 새로운 소득 작목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젊은 농업인과 우수 농업인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원재료를 중심으로 판매했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장수군은 농축산 종합 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즉, 환, 간편조리식품 등 장수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등 더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환경과 미래 먹거리에 대비해 군은 식용 곤충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노동력 절감기술 지원을 위한 자체 중식한 장수 수정별 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중대를 도모하고 있다. 자체증식 수정별 보급사업을 통해 수정별 봉군을 자체 생산해 보급함으로써 화분매개곤충 구입에 따른 농가경영비를 50%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팔기 좋은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 전문 부서를 신설해 사계절 내내 팔 걱정없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 간다. 또 농특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을 조성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고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했던 유통 절감을 위해 군은 비대면 스마트 경매타운을 건립하고 농민 편의를 보장, 판로를 확대한다.



소통을 통한 주민과 함께 **누구나 살기 좋은 마을 조성**

장영수 군수가 이끄는 행정의 원동력은 '소통'이다.

주민과의 소통으로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살피며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민선7기의 시작과 함께 장군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장수군 소통콘서트 '사람이 답이다'를 열었고, 지난해에는 '2020년 장수청년 5·4·8 청춘 토크콘서트'를 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또한 농업이 주된 수입원인 장수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을 위한 품목별 간담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장수한우와 장수사과를 비롯한 오미자, 두릅, 토마토, 쌈채소, 수박, 양봉, 식용곤충 등 분야별 농업인들을 직접만나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사항 등을 직접 살피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에 대비한 장수군

그 결과 농민들이 사계절 내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기금을 조성하고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장수한우사육기반구축사업, 계남·계북 등 7개 읍·면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추가지원 등을 시행하고 돈버는 농업·농촌에 힘을 실었다.

이밖에도 군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여성·청소년문화센터 건립, 전북대학교 장수캠퍼스 농업시스템학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및 대학생 반값등록금, 장수누리파크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 설치, 군민 안전 보험가입, 결혼 축하금 지원, 이·미용권, 효도수당 지원, 여성청소년위생용품 지원 등 농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진행됐다.

장영수 군수는 그동안의 성과 달성을 안주하지 않고 잘 사는 장수군과 주민들을 위해 장수군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그 시작으로 많은 군민들의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 정원' 조성이 민선7기 하반기를 희망차게 출발시켰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지관리법'개정안이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은 앞으로 육십령을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한 육십령 정원센터, 테마정원 및 금길, 육십령 캠핑장, 편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으로 영호남 상생협력과 생활권 장벽을 해소하고 전국 관광지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전국 8대 종산의 하나이며 장수군을 대표하는 장안산 군립공원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수 천천에 놀라온 조성사업', '장수군 산림레포츠 사업', '산림생명사업' 등 장안산을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과 명확한 추진 주체를 연계해 장수의 대표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장수의 제2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탄소섬유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조랑밀놀이공원 전경



장수의 새로운 도약,

장수5·4·8정책

장수 '5·4·8'정책이란?

장수군에 오고싶고 살고싶은 장수
사고싶은 장수 농·특산물
팔기좋은 유통환경을 만들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5

오(5)고 싶고 살고싶은 장수

- 장수만의 문화자원 특화로 대표성 확보
- 귀농 · 귀촌 인프라 확충으로 인구 유입
- 다양한 정주시설 확충
- 거주 인프라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 추진
- 모든 군민 대상 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

핵심사업

- 장안산 대표관광지 개발
- 하이패스 IC설치, 장수IC~천천 연결도로 개설
- 장수 · 장계 공공 주택 건립
- 효수당 지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 서울농장, 삼락농정, 귀농귀촌인 임시주거시설 조성

8

팔(8)기 좋은 유통환경 조성

- 장수 유통시스템 통합 및 안정화
- 농민이 편리한 유통인프라 확충
-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즐거운 6차 산업 구축



4

사(4)고 싶은 장수 농·특산물

- 지속적인 우수 농업인 양성
- 고품질 친환경 농 ·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지원
- 변화하는 미래 농업에 적극 대응

핵심사업

- 친환경 농축산 경영 및 생산기반지원
- 농축산 종합 가공센터 건립
- 신성장 작물 발굴 지원
- 축산미래산업육성(양봉, 곤충)

핵심사업

- 농산물 신선편이 가공시설 건립
- 농산물 가격안정화 기금 조성
- 비대면 스마트 경매타운 건립
-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조성

촘촘한 복지로 누구나 살기 좋은 장수군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으로 복지사각 해소

세대공감 정책으로 복지정책 만족도 상승

장수군은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 실현을 목표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여성과 보육 등 생애 주기별 양질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해 전 세대가 공감하는 건강한 복지를 구현하고 있는 장수군의 복지정책을 살펴본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

행정의 힘으로만 복지사각 지대를 100%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다. 때문에 민관 협력 구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수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해 행정의 손이 미처 닿지 않는 복지사각지대까지 희망의 손길을 뻗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의료 및 자활 지원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는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 해소를 포함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위기가정 긴급지원, 생활밀착형 사회복지심부름 수행 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 이웃돕기복구센터
▲ 임산부 상담

아이 낳고,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장수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시대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장수군은 출산, 육아, 교육 등 다방면에서 가족이 즐겁고 행복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장수군은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 공동육아나눔터

의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 건강관리, 난임부부,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저소득층 영유아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한다.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개설해 아이들이 뛰놀고 오전에는 육아품앗이, 오후에는 맞벌이가정 자녀 초등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가족이 행복한 육아 가능 도시를 실현했다.

여기에 장수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광자원 개발 분야 공모사업에서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와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조성사업 등이 최종 선정돼 국비 70억원을 확보하면서 장수누리파크에 어린이 생활문화센터와 모험놀이터가 조성 중에 있다. 자연에서 뛰놀고 자연에서 배우는 교육의 장이 열린 것이다.

이밖에도 영유아 차량보조시트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 양육수당, 북스타트지원, 청소년활동 및 상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 어르신 이·미용권

따뜻하고 편안한 노후, 건강100세 장수

장수군의 노인 복지 정책은 단순한 보호 정책이 아닌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돋는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으로 노인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경제적 자립을 돋고 퇴직한 중·장년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후 설계를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이미용과 행복택시, 목욕탕지원 등은 이미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복지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2019년에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치매로부터 대비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수군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열고 치매조기발견과 치료, 중증화 억제 등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매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기초연금, 노인복지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무료경로식당 등을 운영하며 건강 100세 실현을 돋고 있다.

최근에는 효문화 확산을 위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가정 효도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 치매예방프로그램

▲ 행복콜



- 1 2 3 4
 1. 고3 청소년 힐링프로그램
 2. 다문화음식만들기
 3.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프로그램
 4. 장수학당종강식

다양성 존중, 다문화 사회·여성 친화도시 장수

장수군은 다양성을 존중받는 다문화 사회 조성을 위해 다문화 가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체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방문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의사소통과 언어발달 평가를 통한 아동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한다.

이중언어를 통한 가족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언어의 사용의 중요성과 인식개선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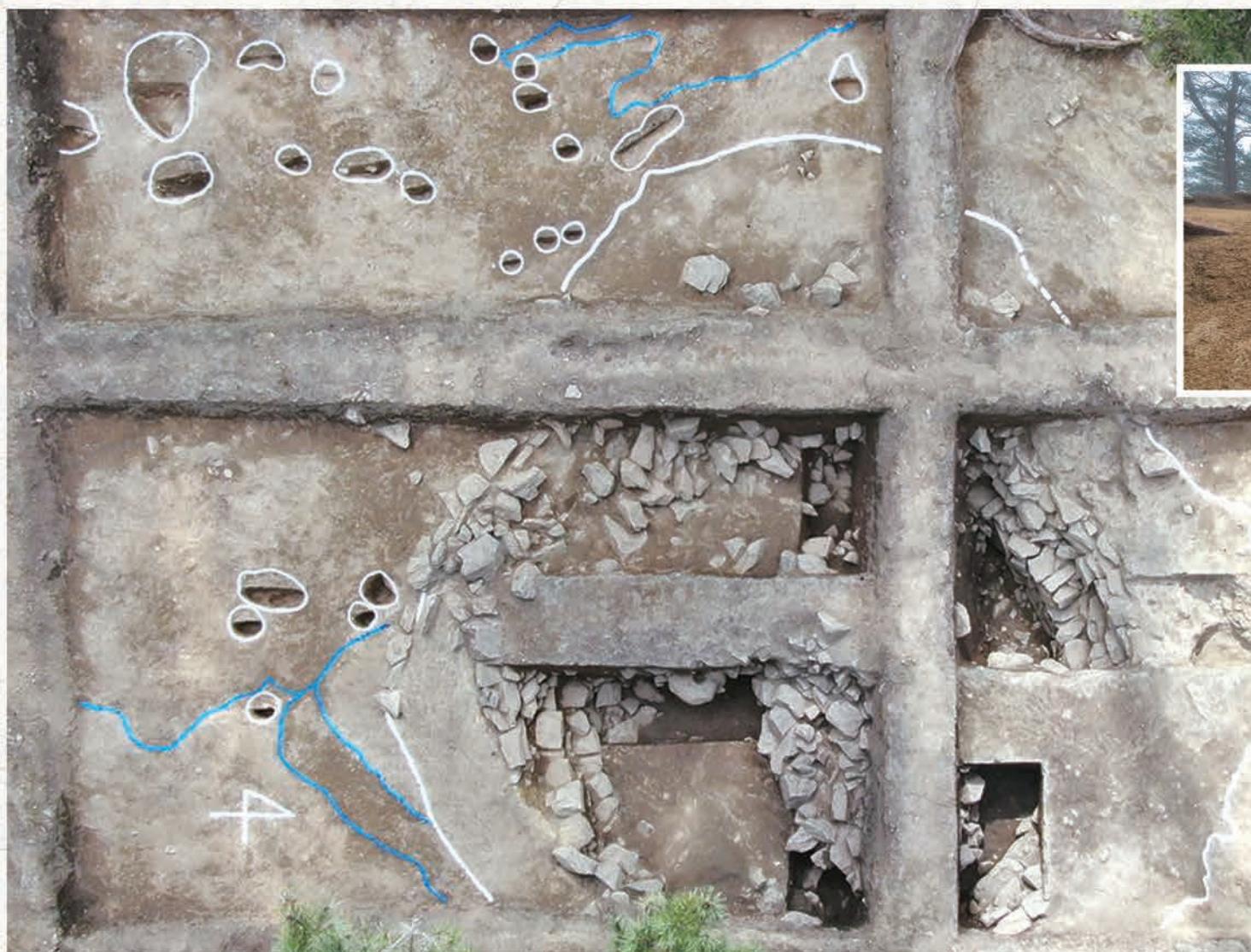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들에게는 진로 적성검사와 체험 캠프를 통해 진로지원을 돋고 있으며 건강한 가정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 부모·아버지역할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통·번역서비스, 직업훈련교육, 결혼이민자 대학비 지원, 역량강화 자조모임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문취업상담사 운영을 통해 1:1 맞춤형 취업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간담회와 직장문화개선 워크숍·컨설팅, 개인맞춤형 취업알선 등 취업단절 예방 사업도 펼치고 있다. 월 80만원씩 3개월 동안 기업에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에게는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자인턴십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과 여성 구직자 모두가 안정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돋는다. 여기에 이동상담, 동행면접 사후관리, 여성 친화기업 발굴 등을 통해 취업을 돋고 여성친화기업 MOU체결시 여성휴게실, 화장실 등 기업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등 여성친화기업 양성에 힘쏟고 있다.

여성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미, 소양 교육, 취·창업 교육 등도 진행하고 있다.



▲ 장계 삼봉리 터

봉화불이 피어오르는 장수

장계 삼봉리 봉화, 산서 오성리 봉화봉

장수군 일원은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이 둘러싼 고원 분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사방이 산줄기로 둘러싸여 외부의 소식을 전해 듣기가 어려웠을지 모른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던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수단인 봉화를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봉화는 불을 피워 국경 (나라와 나라사이의 경계)의 긴박한 소식을 왕이 살고 있는 중앙에 알리는 기초 통신수단으로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약자로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함)의 원조 이기도 하다.

당시 봉화를 운영한 기록이 있는 반파국은 짧은 문헌기록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높았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봉화를 운영하며 백제와 신라에 맞서 싸웠을 뿐 아니라 중국 양나라 당시 (서기 526~536) 백제사신 행차도(12개국 사신그림)를 그린 양직공도에서 백제다음으로 나열된 곳이 반파국이다.

이러한 위치규명을 두고 기존 학설은 경북 고령군을 주목했지만 반파국과 관련된 아무런 물적증거가 없는 현실이다.

장수는 그에 반해 많은 물적증거와 문헌자료가 확인되어 반파국으로서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지금껏 장수에서 확인되고 있는 역사적 고고학적 자료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장수에서 확인되는 22개소의 봉화유적 중 최근 조사되고 있는 장계 삼봉리 봉화와 산서 오성리 봉화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해줄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외형이 잘 남아있는 오성리 봉화와 봉화꾼이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삼봉리 봉화의 집수시설 (우물)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유적에서는 삽국시대 가야토기들이 확인되는 등 물적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다.

가야소국 중 봉화를 운영한 곳은 문헌기록상 반파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고고학자료가 확인되고 있는 장수군, 그동안 반파국으로 알려진 경북고령이 수십년간의 노력에도 봉화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어느 쪽으로 가야계 강력소국인 반파국의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맞는지 많은 생각을 해 볼 때이다. 신중함은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비판은 전북지역 가야사 재정립에 있어 불필요한 요소가 될지 모른다.

장수가야역사관예상도 ▶



아이와 가족 모두가 즐거운 장수 누리파크

체험 놀이터

흙을 밟을 기회가 적은 요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 대부분은
아이들과 떠날 수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찾기에 여념이 없다.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아이들과 맘껏
뛰놀고 체험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체험 놀이터가 장수군에 조성된다.
바로 장수 누리테마파크 체험 놀이터.



장수군 누리파크에 가족·어린이를 위한
체험 놀이센터가 본격적으로 조성된다.

장수 누리파크 놀이센터는 총사업비 30억 원이 투입돼 2,960㎡의 규모로 건립된다.
체험 놀이센터는 사계절 발물 놀이장(기구 17종), 모험 놀이터 (기구 7종)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험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놀이 시설물은 장수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오미자, 토마토 등 레드푸드 컨셉으로 꾸며
지며, 물놀이장에는 사과 타워 놀이대,
쪼개진 사과 미스트 터널, 짚라인, 토마토
점핑놀이 시설 등이 들어선다.

누리파크 안에는 놀이 센터와 함께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관광자원
개발 분야에 선정된 어린이 생활 문화
센터도 조성된다.

어린이 생활 문화센터는 총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돼 약 990㎡ 규모의 어린이 실내
놀이터와 영유아 놀이터, 작은 도서관, 각종
특화 시설 등이 건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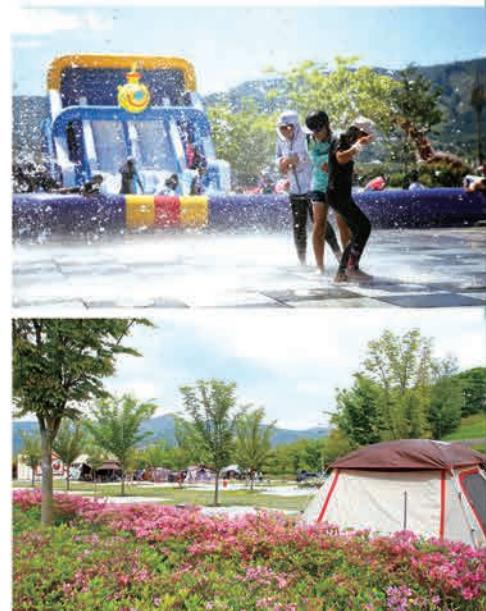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언택트 여행지
조성과 가족 단위의 체류형 여행을 위해
카라반 및 데크야영장, 자연놀이터, 야간
경관시설, 그늘 쉼터 등도 새롭게 단장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전라북도 동부권발전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 총사업비 5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누리파크 체험 놀이센터 조성을 통해 군은 어린이 여가 및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 충족을 통해 젊은 인구의 생활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학교를 벗어난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들의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활용돼 교육자원의 다양화 및 어린이 생활문화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생활문화센터를 통해 가족 단위 여가 활동과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누리파크 | 장수군 장수읍 논개사당길 65

장수군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 추진 탄력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로 ‘산지관리법’ 개정안 통과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장수군의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임업인들과 장수 군민들의 염원이
드디어 빛을 빛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장수군의 오랜 염원인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을 허가하는 조항에 다양한 식물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산지관리법개정안에서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성 및 운영하는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육십령을 자연 그대로의 식생을 활용한 산림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정원에는 육십령 정원센터, 테마정원(빛, 물, 꽃, 숲, 놀이) 및 숲길(육십령 이음길, 순환로, 진입로 및 쉼터 등) 조성, 육십령 캠핑장(카라반, 글램핑 등) 및 기타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백두대간 육십령 산림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군은 영호남이 맞닿은 육십령 일원 정원화로 영호남 상생협력과 생활권 장벽을 해소하고, 전국 으뜸인 남덕유산-서봉 겨울철 상고대와 백두대간 종주 등반에 경남 함양군 덕유교육원과 연계돼 많은 등산객이 방문하는 등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수 군수는 "막혔던 지역 현안사업의 실태를 풀어준 안호영 의원께 감사를 전한다"며 "본 개정안은 정원산업 발전과 산림공익시설 확산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수군의 아름다운 백두대간 육십령을 보다 더 잘 활용하여 경제적·공익적 가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육십령고개 :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장수 땡양지마을 '머위' 새로운 소득작물 각광!

머위 연중 생산, 환·증·장아찌 등
가공식품·체험상품 인기!

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물 중 하나인 머위는 추위에 강한 작물로 해발고도가 높고 사면이 산림으로 이뤄진 장수군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중 머위를 비롯해 각종 산나물을 생산하고 가공식품과 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장수군 계북면 월현리 땡양지산촌생태마을을 찾았다.

기후변화 대응 신 소득작물 '장수머위'

다소 습기가 있는 곳에서 무리지어 잘 자라는 머위는 예로부터 밥상에 빠지지 않는 친근한 식재료이다. 잎은 쌈으로 먹고 장아찌를 담가 먹기도 하며 줄기는 나물로 무쳐서 먹는다. 머위는 쓴 맛과 특유의 향이 별미이다.

한의학에서 머위 뿌리는 기침을 멎게 하는 진해제(鎮咳劑)로 사용된다. 해독작용이 뛰어나며 물을 정화하여 맑게 하는 특성이 있다.





잎부터 뿌리까지 버릴 게 없이 사용되는 머위는 집 주변과 울타리 아래 자생하거나 심기도 하며 밭작물로 재배되고 있다.

장수군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머위를 주목해 새로운 소득작물로 선정하고 신기술 보급 등 육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장수군 계북면 땅양지산촌생태마을에서 연중 머위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장수 머위는 노지에서 자란 머위보다 잎이 부드러우며 병충해가 적은 장점 가지고 있다. 특히 사계절 내내 생산이 가능해 고소득이 가능하다.

머위 환·즙·장아찌 등 가공식품, 체험상품 인기

땅양지산촌생태마을에서는 35농가가 참여해 매산청풍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장수머위를 연중 생산하고 있어 덕분에 장수에서는 사계절 내내 머위의 봄맛을 느낄 수 있다.

1.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시범
2. 하트모양을 닮은 머위
3.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장수머위

미래의 땅 장수 | 장수 머위의 봄 맛!





장수머위를 활용한 체험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머위를 직접 따고 나물과 쌈, 장아찌, 차 등을 만들어 머위를 활용한 밥상을 차리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장수에 직접 오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든지 장수 머위의 맛을 볼 수 있다. 매산청풍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은 머위를 활용해 만든 장아찌와 환, 즙 등 가공식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장아찌는 머위 잎이 성인 여성 손바닥만큼 자란 여린 머위의 잎과 줄기까지 채취해 담가 최고의 식감과 향을 자랑한다. 충분히 자라 영양분이 뿌리에 집중된 머위 뿌리로는 환과 즙을 만든다. 잎과 줄기를 첨가해 뿌리의 씹쓸한 맛을 중화시키고 영양분을 더한다.

장수 머위는 가공식품과 체험 상품 등을 통해 판로를 다각화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 선풍적인 인기를 예고하고 있다.

깊은 산속에서 자란 산나물 '마을 특산물 꾸리미'

팽양지산촌생태마을에서는 깊은 산골에서 자란 머위와 함께 엄나무, 다래순, 산야초, 오미자, 두릅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도 생산된다. 모두 농가에서 직접 키우고 담그며 머위 장아찌를 포함해 두릅, 다래순 등 6가지 산나물 장아찌가 한 꾸리미 세트로 판매되고 있다.

산야초는 효소로 만들어져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있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숙성과정을 거친다. 약초의 성분이 합쳐져 복합효소로 만들어진 산야초 효소는 소화흡수와 분해배출, 장내 유익균 증식, 지방분해, 전화·해독작용, 체질 개선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자로 유명한 장수군에서 팽양지산촌생태마을이 오미자의 본고장 중 한곳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오미자는 장수군의 대표 레드푸드 중 하나이다. 오미자를 활용해 만든 즙과 청이 전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팽양지산촌생태마을 : 장수군 계북면 월현로 323-23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예방접종으로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고위험군 1차 접종 완료되는 7월부터 적용
예외적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 조치 완화

예방접종 대상 확인 및 예약 절차

시기	1차 (6월 1일 ~)	2차 (7월 첫 주 ~ 9월)	3차 (10월 이후)
예방접종 목표	60세 이상 고령자 1,300만명 1차 접종 완료	60세 미만 3,600만명(누적) 1차 접종 완료	60세 미만 3,600만명(누적) 2차 접종 완료
방역 조치 대상	예방접종자 (1·2차)		예방접종 완료자
완화 활동	가족 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적 모임 등 (인원제한에서 제외)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 완화
마스크 작용	현행 유지	실외 의무화 완화 (1차 접종자 포함)	실내 의무화 완화 (12월~)

예방접종을 위해 함께 팔을 걷고 방역수칙을 지키며, 안전한 일상을 향해 함께 걸어갑시다.
예방접종은 완료자와 접종을 받지 못하신 국민 모두의 그리운 일상회복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고령층 중심 일상회복을 우선 지원합니다. 1차, 고령층 중심 방역 조치 완화 방안

일시 6월 1일 ~

주요 방역 완화 내용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
- 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 예방접종배지 제공
-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시행중)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노래,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요양병원,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 요양병원, 시설 접촉면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2차, 60세 미만 전 국민 방역 조치 완화 방안

일시 7월 첫 주 ~ 9월

주요 방역 완화 내용

1차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체제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
- 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 종교활동 시 성가대, 소모임 가능(완료자로만 구성 시)
-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 험성, 스탠딩 공연 검토(완료자로만 구성 시)

포스트 코로나대비, 전 국민의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3차, 일상회복 지원 방역 조치 완화 방안

일시 10월 이후, 1차 · 2차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자

주요 방역 완화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재논의
- 12월 이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장영수 장수군수,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 실시

장영수 군수와 장수군 각 실·과장은 현장 소통을 위한 주요사업장 방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현장 방문에서는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군은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계북-미위시범사업 ▶



▲ 계남-장수레드푸드물복합단지

장영수 군수와 각 실·과장은 관내 군정 주요사업장을 방문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사업장 방문은 사업장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군민 불편사항을 수렴·개선하는 등 군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으며,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누리파크 활성화 사업,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공사 및 연결도로 개선사업 등 총 26개소를 방문해 주민 의견 청취,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장 군수는 장계 복합문화센터의 적절한 공간 배분을 주문하며 주변 사업장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번암-봉화산철쭉관광단지



▲ 천천-하이패스ic현장



▲ 산서-활죽감자재배시설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에는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 질서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진출입로를 확보할 것을 주문하고 부지 내에 토요상설장터 등을 조성하는 등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모색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 장수읍-뜬봉샘



장수 하이패스 IC 개설공사 및 연결도로 개선사업지 방문을 통해 장 군수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편의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활죽감자 재배시설 시범 사업지와 지역특색농업발굴 소득화 시범사업지(머위) 등에서는 홍보·판매 등의 지원을 통한 유통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수군의 새로운 대체작목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방문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수군은 주요사업장은 물론 군정전반에 대해 현장행정을 통해 군민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는 소통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장계-장례식장조성현장

결혼이주여성
한식조리기능사반
배움 열기 ‘**후끈**’

장수군다문화지원센터
교육 초반 60%
필기합격

**1명
최종합격**



▲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교류

“

장수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 한식조리기능사반 이론교육

센터는 동행복지재단이 주관한 2021년 다문화가족 한국정착 다(多)이룸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지원받아 결혼이주여성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주 3회 총 50회에 걸쳐 한식조리 이론과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이주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 교육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생 10명 중 6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이 중 1명은 실기시험까지 합격해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센터는 모든 교육생이 자격증을 취득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차후 필기시험 재응시 및 실기시험 응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은 “한식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해 가족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자격증 시험이 어렵지만 취업을 위해 열심히 배워서 합격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수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9년부터 건강가정센터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8대 장수군의회 의회소식

[2021년 상반기]



2021년도 상반기 장수군의회 회기 운영 : 5회 개최, 37건 의결

<조례안 27건, 예산결산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4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2021년 2월 제32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6월 제326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27건, 예산결산안 3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4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2월 16일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2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청취했다.

김용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가 코로나19 극복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2021년 세부실천계획 청취를 통해 군정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들께 힘이 되고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2021년도 상반기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복지위원회

24건 심의·의결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4건, 동의안 1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국희)는 2021년 상반기에 총 5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24건의 각종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9건 심의·의결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금례)는 2021년 상반기에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장수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장수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 하였다.

의원 발의 조례: 8건 의결

유기홍 의원 :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종문 의원 :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장정복 의원 :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한국희 의원 : 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상반기 특별위원회 운영과 활동

✓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 7개읍면 8개 사업장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5월 26일, 제325회 임시회에서 2021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유기홍)를 구성하고 7개 읍면 8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승인하였다.

제3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4까지 3일간 일정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해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확인과 더불어 사업장 선정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의 효과 및 예산 낭비요인 발생 여부 등 종합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등

장수군의회는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화식)을 구성하고 6월 21일까지 5일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에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적정한 예산편성,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발생 최소화, 예측가능한 경비의 경우 사전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한 집행 추진 등을 요구했다.

QA

군정질문



제322회(2021. 2. 16)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종문 의원은 군정 질문에 나서 '장안산 군립공원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일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1986년 장수군의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장안산을 장수군의 랜드마크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장안산 군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장계면 대곡리 일원과 장안산 군립공원의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장안산 발전을 이끌어 나갈 명확한 추진 주체의 구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복 의원은 제322회(2021. 2. 16)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축산농가 축분처리 및 퇴비 살포 면적 확대 방안 마련'에 대한 군정질문을 실시해 축산농가 축분 처리량 및 지원농가 확대, 조사료포의 퇴비살포 면적 증가 등을 통한 관내 유기질퇴비 공급 확대 등을 군에 촉구했다. 또한 제326회 제1차 정례회(2021. 6. 10)에서는 '보다 안정된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원예작물과 과수까지 확대된 농업인 월급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화식 의원은 제322회(2021. 2. 16)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정 질문에 나서 '계남면 유천천 정비 및 곡리-음신간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폭우에 대비해 계남면 유천천 일부 구간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줄 것과 2012년 개설된 1.2km 구간의 곡리선과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을 연결하는 곡리-음신간 농어촌도로 개설을 촉구하였다.



5분 발언



한국희 행정복지위원장

한국희 의원은 제323회(2021. 4. 7)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발언에 나섰다. "관내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농외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그 조건을 완화하였고, 그에 따라 농업인이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금례 산업건설위원장

제323회(2021. 4. 7)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나금례 의원은 5분 발언에 나서 '(구)장계남초등학교 방치 관련하여 관리부실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법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치된 채 폐허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인근 주민과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하루속히 정비되어 적절한 용도로 사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화식 의원

최화식 의원은 제326회 제1차 정례회(2021. 6. 10)에서 5분 발언으로 "덕유산 환승 휴게소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지역과 인근 시·군에 거주한 인구가 좀 더 편리한 교통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나아가 환승휴게소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재 금산 인삼랜드에 위치한 환승 휴게소를 덕유산 휴게소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의안 채택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4월 28일 제324회 임시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장수군의회 의원 7명 전원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 강행은 한반도 주변 바닷물의 심각한 오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생태계를 오염시켜 인류 전체에 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과 인접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문 의장도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들도 강력히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정부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을 요구했다.

장영수 군수 전북 첫 사랑의 열매 나눔리더 가입

장영수 장수군수가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중에는 처음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
사랑의 열매 나눔리더에 가입했다.



나눔리더란 1년 내 100만원 이상 일시 또는 약정을 통해 기부하는 개인
기부자를 의미하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눔리더에 가입하면 인증패 수여, 기부금사용보고, 세제혜택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나눔리더가 전달한 성금은 전북 내 소외이웃에게 전액 사용된다.
전북에서는 현재까지 6명의 나눔리더가 활동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나눔리더 가입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나눔 사랑 실천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장수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선이 마시는
천상의 다섯가지 맛!
오미자!

명품 오미자 와인과 함께
품격있는 인생을 즐기세요!!



www.jangsumall.com 장수몰 MALL
JANGSU MALL
NAVER 장수군청 검색

Tel. 063)350-5448

코로나19 극복의 지름길

백신접종!

거리 두기,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에 동참해주세요
백신 접종 효과 사례는 계속됩니다!



질병관리청